

윤리와 사상 정답

|    |   |    |   |    |   |    |   |    |   |
|----|---|----|---|----|---|----|---|----|---|
| 1  | ⑤ | 2  | ② | 3  | ⑤ | 4  | ③ | 5  | ② |
| 6  | ⑤ | 7  | ⑤ | 8  | ① | 9  | ③ | 10 | ② |
| 11 | ① | 12 | ① | 13 | ① | 14 | ③ | 15 | ② |
| 16 | ④ | 17 | ④ | 18 | ③ | 19 | ④ | 20 | ④ |

윤리와 사상 해설

1. [출제의도] 순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위를 일으켜 사람의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성현이 제정한 예의를 익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을 강자의 이익이라고 보고, 세속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을 덕이라고 보았으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부여한 이법적 실체[天理]가 아니라 기호(嗜好)라고 보았으며 사덕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선행 혹은 악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인간의 욕구를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4. [출제의도] 벤담과 흄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흄이다.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으며, 흄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흄은 덕과 악덕을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감정은 공감을 통해 개인의 주관성을 넘어 보편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페팅, 을은 벌린이다. 페팅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유의 실현이 법에 의한 지배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벌린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타인이나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석가모니와 장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석가모니, 을은 장자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현상과 사물은 무상하므로 고정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연기의 법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미추(美醜)는 상대적이며, 자기 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에피쿠로스와 밀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ataraxia)를 추구하였으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것을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하며,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자기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듀이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듀이, 을은 사르트르이다. 듀이는 고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성장과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다고 보았으며,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한다고 보았으며,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엘리트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비교하기

갑은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인 슈페터, 을은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인 하버마스이다.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치가들이 시민의 표를 얻고자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다.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심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하였으며, 좋음 자체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좋음이 모든 좋음을 포함하는 완전한 것이며,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구성원의 생명과 자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로크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입법부가 신탁을 위반하여 권력을 남용할 때는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여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보았으며,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주희는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 사이에 선후가 있다고 보았으며, 왕수인은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은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헤겔과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헤겔, 을은 지눌이다. 헤겔은 자성이 곧 부처임을 단박에 깨닫기만[頓悟]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돈오하더라도 오랫동안 쌓아 온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인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으로 보았다. 그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이고, 의무 이행과 행복 추구는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자기 행복을 고려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사상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 을은 동학사상가 최제우이다. 이항로는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는 지키고[衛正],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배척해야[斥邪]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제우는 민족 고유 사상인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가의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모든 인간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侍天主]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스토아학과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과 사상가 아우렐리우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운명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을 발휘하여 신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유일한 실체인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케인스, 마르크스, 하이에크의 사회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케인스, 을은 마르크스, 병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황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생산 수단의 사유화에 있다고 보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강조하였다. 또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맹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맹자, 을은 노자이다. 맹자는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으며, 무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주장하였다. 노자는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무위의 덕을 행하면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